

2024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고린도후서

메시지 12

사도들의 권위, 전쟁의 무기, 하나님께서 제어 주신 분량

성경: 고후 10:3-18, 13:10

- I. “내가...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고후 13:10.
- A.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사도의 권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만들었다—고후 13:10, 10:3-18.
 - B. 그것은 거짓 사도들(고후 11:11-15)로 인해 야기된 혼란스럽고 흐릿한 상황 때문이었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자신들에 대한 주장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진정한 사도들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에서 빗나가게 했다(고후 10:1).
 - C. 하나님이 최고 권위이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롬 9:21-22.
 - 1.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시다.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서 나온다—계 22:1.
 - 2. 모든 권위—영적, 위치적, 통치적—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후 10:8, 13:10, 요 19:10-11, 창 9:6.
 - 3.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권위이시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간접적인 권위—대리 권위, 대표 권위—이다—단 4:32, 34-37.
 - a.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리 권위에 복종할 수 있다—마 28:18, 히 13:17, 뱀전 5:4.
 - b.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그분께 복종할 뿐 아니라 모든 대리 권리에도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롬 13:1-7, 고후 10:8, 13:10, 히 13:17.
 - 4. 권위를 아는 것은 외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 내적인 계시이다—행 22:6-16.
 - 5. 우리는 모두 반드시 권위를 만나고, 하나님께 제한받고, 하나님의 대리 권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사 37:16, 빌 2:12, 히 13:17.
- II. “우리가 싸우는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고후 10:4-5.
- A. 영적 전쟁의 첫째 원칙은 육체적이고 육적인 모든 무기를 버리는 것이다.
 - B. 영적 전쟁은 육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력(엡 6:12)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무기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무기들은 원수의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고후 10:4.
 - C. 이론과 사상은 생각 안에 있으며 생각에 속한 것이다—고후 10:5.
 - 1.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견고한 요새이다.
 - 2.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이론을 무너뜨려야 하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고후 10:4-5.
 - D. 고린도 후서 10 장 5 절에 있는 ‘높아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타락한 지성 안에 있는 오만한 것들이다. 이것들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적인 무기로 무너뜨려야 한다.
 - E. 이 영적 싸움의 목표는 타락한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사탄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1. 이 요새들은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교만한 사상과 상상이다.
 - a. 오만한 상상과 교만한 사상은 사탄이 사람의 생각 안에 건축한 요새이다.
 - b. 그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한다.
2.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높아진 이론과 오만한 사상인 이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3.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에 맞서 싸워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고후 10:5.

III.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고후 10:13.

- A. 사도 바울은 담대하였으나 제한 없이 담대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바울의 자랑은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 곧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이었다.
 2.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재어 주신 분량에 따른 것이었다(엡 3:1-3, 8, 갈 2:8). 그러므로 그의 자랑은 한계 안에 있었다.
- B. 고린도후서 10 장 13 절에 있는 ‘재어 주시는’은 직역하면 ‘측량하는 막대기’, 즉 목수의 자와 같다.
 1. 13 절에 있는 ‘분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재어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과 체험에 딱 맞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2. 재시고 측량하시는 분, 즉 측량하시는 하나님, 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어 주시고 측량하신 제한 안에 머물러야 한다.
- C. 고린도후서 10 장 13 절부터 15 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이 확산되기를 기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기를 배워야 함을 볼 수 있다.
 1. 우리는 분량의 제한이 없는 확산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종류의 확산은 분명히 그 영을 따른 행함의 제한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롬 8:4-5, 14.
 2. 체험에서 우리는, 그 영에 따라 일을 확산할 때 언제나 어떤 제한이 따름을 증언할 수 있다.
 - a. 어떤 지점을 넘어서 일을 확산할 때, 내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
 - b. 우리가 경계선을 넘는 것은, 외적으로 환경이 허용하지 않는다.
- D. 바울은 주님의 제한을 받기를 배워야 했다.
 1.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결박되어 가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행 26:29.
 2.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는이들에게, 그들을 만난 후에 스페인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롬 15:24), 결코 스페인에 가지 못했다.
 3.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재어 주심에 복종하고자 했다. 바울이 결박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제한이었다.
- E. 하나님께서 분량을 재어 주시는 원칙에 따라,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행한 모든 것과 말한 모든 것은 그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울은 항상 그의 분량 안에서 행동하고 처신했다.—고전 2:1-5, 12-13.
- F.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재어 주심에 따라 움직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량이 그들의 지경이 되었다.
- G. 교회 봉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분량만을 재어 주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어 주신 분량을 넘어서 확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을 알아야 한다—고후 10:12, 14.
- H. 바울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어 주신 분량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고후 10:13.